

신생팀 투혼...“졌지만 잘 싸웠다”

AI페퍼스, KGC인삼공사 상대 홈 개막전 1대3 역전패

열세 불구 첫 세트 따내며 ‘막내팀’ 매운맛 보여줘
외인 엘리자벳 양팀 최다 22득점 맹위 기대감 ‘↑’
시민 600여명 뜨거운 응원 겨울스포츠 열기 고조



광주 연고 여자 프로배구 신생팀 AI 페퍼스가 창단 첫 경기에서 ‘막내’의 매운맛을 보여주며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선보였다.

AI페퍼스는 지난 19일 홈구장인 광주 페퍼스타디움(영주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도드람 2021-2022 V리그 홈 개막전에서 KGC인삼공사를 상대로 첫 세트를 따냈지만, 이후 세 개의 세트를 내리 내주며 세트 스코어 1대3(25-16 20-25 21-25 17-25)으로 역전패했다.

비록 첫 승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첫 세트를 따내는 등 투혼을 발휘한 AI페퍼스는 이후에도 팽팽한 접전을 이어가며 리그 돌풍을 예고했다.

페퍼저축은행의 AI 페퍼스는 여자 프로배구 리그에서 10년 만에 탄생한 7번째 신생팀이다.

2012년 런던올림픽 4강 신화의 김형실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고 엘리자벳 이네 바르가, 이한비, 이현, 지민경, 최가은, 최민지, 하혜진, 구슬 등을 영입했다. 지난달 7일 2021-2022 한국배구연맹(KOVO) 여자 신인선수 드래프트를 통해 수련선수 1명을 포함 총 7명을 지명하면서 선수단 구성을 완료했다.

이날 경기 전 취재진과 만난 김형실 AI페퍼스 감독은 비장한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2012년 이후 9년 만에 현장으로 돌아왔다. IBK기업은행 이후 10년 만에 새로운 팀이 창단돼 배구인으로서 감회가 새롭고 설렌다. 또 긴장도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고등학교 졸업한 선수들이 5일 정도 연습을 하고 개막을 맞게 됐다. 다른 팀과 다르게 우리 팀은 6-7명이 한 번에 들어왔다. 연습량과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다”며 “정신적, 기술적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맞는데 경기를 하면서 맞춰가야 한다”고 개막전을 앞둔 심경을 토로했다.

김 감독이 경기력에 많은 걱정을 했던 것과는 달리 AI페퍼스 선수단은 신생팀 투혼을 앞세워 1세트를 압도했다.

AI페퍼스는 드래프트 1순위로 입단한 엘리자벳의 막강한 화력을 앞세워 8대7로 앞선 상황에서 이현의 서브 에이스, 이한비의 백어택, 하혜진의 블로킹, 박현경의 오픈으로 순식간에 5점을 보태며 초반 분위기를 잡았다. 결국 23대16에서 박현경의 시간 차와 엘리자벳의 오픈 공격으로 1세트를 잡았다.

전열을 가다듬은 인삼공사에 2세트를 내준 AI페퍼스는 3세트가 아쉬웠다.

15대14, 21대21, 앞치락 뒤치락이 반복하며 팽팽한 승부를 이어가던 AI페퍼스는 인삼공사의 주포 엘리나를 막지 못해 21대25로 세트를 내줬다.

4세트에도 초반까지 팽팽하던 경기는 승부처마다 터진 인삼공사 이소영과 엘레나의 쌍포에 승부의 추가 가능성이 었다.

AI페퍼스는 엘리자벳을 앞세워 추격했지만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다.

이날 ‘신생팀 에이스’ 엘리자벳은 양 팀 합쳐 최다인 22점을 올리며 1순위 외인다운 기량을 과시했다. 하혜진도 블로킹 5개를 포함해 10득점 했다.

AI페퍼스는 오는 22일 GS칼텍스를 상대로 창단 첫 승에 재도전한다.

한편, 이날 경기장에는 프로배구 구단 사상 처음으로 광주에 동지들은 AI페퍼스를 응원하기 위해 60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 해 광주에서 열린 겨울스포츠 열기를 뜨겁게 했다.

관객들은 저마다 AI페퍼스 로고가 그려진 빨간 피켓을 흔들며 열띤 응원전을 펼쳤다. AI페퍼스를 열렬하게 환영했다. /박희중 기자



지난 19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AI페퍼스의 홈 개막전. AI페퍼스 엘리자벳이 KGC인삼공사 한송이의 블로킹위로 강스파이크를 때리고 있다. /김애리 기자



19일 열린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와 KGC인삼공사의 경기에서 김형실 감독이 선수들에게 작전을 지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습량 부족이 패인 전체적으로 2% 아쉬워”

김형실 감독 “광주시민에게 사랑받는 팀 만들겠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 부족했다고 인정한다. 연습 부족이 전체적으로 미스였다.”

창단 첫 경기를 끝낸 김형실 AI페퍼스 감독의 표정에서는 아쉬움이 드러났다.

김 감독은 “선수들의 파이팅, 수비에 대한 승부 근성 등 모두가 열심히 잘 해냈다. 만족은 아니지만, 이 정도로 첫 경기를 마무리했다는 부분에서 감독으로서 고부적이라 생각한다”며 “오늘을 경험삼아 다음에는 더 나은 경기가 될 거라 확신한다. 선수들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에서 열린 역사적인 첫 홈경기에서 AI페퍼스는 예상을 뒤집고 1세트를 따내는 투혼을 발휘했다.

김 감독은 “블로킹 한 두개 잡혀 주니까 상대팀이 당황하는 게 보였다. 우리는 도전자라 인삼공사는 쫓기는 입장이라 더 당황하지 않았나 싶다. 블로킹 한 두개 잡아 분위기를 주도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 언제든 지 선수들에게 한 세트, 한 게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려 한다. 오늘 끝까지 포기 안하고 최선을 다한 선수들을 칭찬해 주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1세트에서 하혜진이 기대 이상으로 해냈다. 원래 포지션이 라이트인데 최민지가 완전히 회복이 안돼 엘리자벳 때문에 임시 센터를 썼다. 경험이 풍부한 만큼 포지션을 잘 소화했고, 주장 이한비도 제 몫을 다했다. 첫 세트는 감독의 주문대로

잘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AI페퍼스는 외인 1순위 엘리자벳이 양 팀 합쳐 최다 22점 득점을 기록하는 맹활약을 펼쳤다.

이에 김 감독은 “사실 솔직히 용병 1순위를 영입했는데 다른 팀 역외 외국인은 경력을 본다. 엘리자벳은 어린 선수라 앞으로 우리 팀 선수들과 같이 무궁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한다. 다른 선수들은 노련한 용병들이 있더라. 그래도 상위 클래스에 속한다고 자부한다”며 “하지만 높낮이, 포스 공격에 대한 콤비네이션이 아직 매끄럽지 않아 조금 더 팀에 녹아들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 감독은 광주에서 열린 홈 개막전 소감을 묻는 질문에 “2004-2005년도에 프로가 출범했는데 그때부터 광주 배구가 소외되는 것을 느꼈다. 그 전에는 대통령배나 V리그, 슈퍼리그에 광주가 ‘배구 메카’ 역할을 했고, 광주 시민들의 배구에 대한 열망이 대단했다”며 “AI페퍼스가 신생팀이지만 현재는 부족하다라도 오늘보다 내일, 좋은 집보다는 튼튼한 집으로 갈 수 있도록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광주 시민여러분이 애정을 가지고 기다려주시면 정말 사랑받는 팀으로 자리매김하겠다. 겨울철 스포츠를 광주 시민들이 맘껏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 여러분께 뜨거운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희중 기자

상시 출격 대기...장현식·정해영 ‘기대반 우려반’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구원 투수진의 기동 장현식(26)과 정해영(20)이 올 시즌

후 연봉 고과 산정에서 으뜸을 다룰 것이라는 데 물음표를 달 이는 거의 없다.

선발 투수진의 붕괴, 시즌 내내 부진한 타선 때문에 KIA는 5강 싸움을 해보지도 못하고 일찌감치 하위권으로 추락했다.

홀드 1위 장현식과 세이브 공동 4위 정해영마저 없었다면 가장 밀바라에서 해매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장현식은 홀드 31개를 수확해 이 부문 타이틀 홀더를 꿈꾼다. 데뷔 2년 차 정해영은 KIA의 뒷문을 맡은 올해 생애 첫 30세이브 달성에 1계를 남겼다.

둘은 지난 19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SSG 랜더스와 벌인 홈경기에서 8, 9회 차례로 마운드에 올라 삼자범퇴로 1이닝씩 던져 팀의 5-4 승리를 책임졌다.

저조한 팀 성적에도 20대 초중반의 젊은 두 투수가 세운 홀드·세이브 기록에 KIA 팬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진다. 그러나 그만큼 걱정 어린 시선도 많다.

지난해 41이닝을 던진 장현식은 KIA의 필승 계투조를 꿰찬 올시즌 66경기에 등판해 73%이닝을 던졌다.

KIA 불펜 ‘기동’, 작년보다 60-80% 더 던져 높은 피로도...시즌 후 정밀관리 필요성 대두



세이브 공동 4위, 홀드 1위를 기록하며 KIA 불펜의 기동으로 자리 잡은 정해영(왼쪽)과 장현식. /연합뉴스

투구 이닝은 경기당 평균 1이닝 이상이다.

그는 홀드 상위 10명에 든 선수 중 가장 많은 이닝 동안 마운드를 지켰다. 장현식의 투구 이닝은 최근 4년 사이 가장 많고, 2020년보다 78% 증가했다. 데뷔 첫해에 38%이닝 동안 공을 뿌린 정해영도 올해 60%이닝을 던졌다. 투구 이닝은 약 58% 늘었다.

불펜에서 상시 대기하고, 언제든 출격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두 투수는 상당한 피로감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젊더라도 피로에는 장사가 없다.

앞으로 10경기를 남긴 KIA는 막판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하면 장현식과 정해영을 자주 호출할 예정이다.

찬바람이 불면서 둘의 강속구 위력은 더욱 커졌다. 정규리그 마지막 달인 이달에만 장현식은 8홀드를, 정해영은 7세이브를 각각 챙겼다.

KIA 마운드 부동의 필승조로 자리매김한 두 선수를 오랫동안 보고 싶다는 팬들의 바람이 큰 만큼 시즌 후 두 선수의 특별 관리 필요성도 커진다.

모처럼 선수 육성의 달콤함을 맛본 KIA가 그보다 더 어렵다는 관리에서도 재주를 보일지 시선이 쏠린다.

/연합뉴스

광주, 육상이수연·수영 정봉기 ‘금’ 전남, 첫금이미옥대회 3관왕 시동

광주·전남선수단 “출발이 좋다”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한 광주·전남선수단이 첫날부터 금빛 날보를 전하며 순항하고 있다.

지난 19일 종료된 사전경기 사격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한 광주선수단은 20일 열린 육상과 수영에서 각각 금메달 1개씩을 추가했다.

육상 이수연이 여자 800m T20(동호인부)에서 2분53초78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고, 수영 정봉기가 남자 자유형 200m S2(선수부)에서 4분13초35의 기록으로 값진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밖에 광주는 수영에서 한준서(남자 자유형 200m S4, 선수부), 여운성(남자 자유형 200m S12, 선수부), 오명진(여자 자유형 200m S14, 동호인부), 남자 계영 단체전 400m S14(동호인부)에서 각각 동메달을 추가했다.

사이클에서는 박영관이 남자 트랙 독주 1km C3(선수부)에서 1분42초412로 2위에 안착,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8강에서 부산을 상대로 6대37 대승을 거두며 광주시 농구팀 최초로 준결



광주 육상 이수연. <광주 시장애인체육회 제공>

승에 진출한 지적장애인은 21일 경기도와 결승 진출을 다룬다. 전남 선수단은 첫날 개인·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수확했다.

전남은 이날 이미옥이 육상 필드 여자 창던지기 결승에서

31.23m를 던져 김하나(21.49m 충남)를 따돌리고 금메달을 따냈다.

대회 3관왕을 노리는 이미옥은 다관왕을 향한 순조로운 출발을 했다.

혼불 선수단은 안동체육관에서 열린 혼성 4인조(동호인부) 결승에서 부산에 4-3, 역전승을 거두고 단체전 첫 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밖에 전남은 육상 트랙에서는 강수빈(여자 800m T20, 동호인부), 나현철(남자 포환던지기), 변경호(수영 S14 여자 자유형 200m, 동호인부) 차진우(남자 자유형 200m), 이지희(여자 광형 50m), 사이클 남자 트랙 독주 1km 등에서 값진 은메달 6개를 수확했다. /박희중 기자